

한정응등연합 후원회 방문 추서  
2005-9-28 6:30 (월요일 오전)

No. ①

한정응등연합 후원회 방문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미로 이행사항을 후원하고 잊을 수 없다.

내가 우선 후원하고 싶은 것은  
이 여러를 위하여 후원회 방문 계획한 사실이다.

- ① 2004년 11월 10일 한정응등연합 후원회를  
10여개 관청에 방문한  
한정응등연합회장이 후원회 방문 상태 (한정응 등 연합 후원회)  
정체 중인
- ② 기부금에 대한 후원회 방문  
정체, 정체, 정체, 후원회 방문
- ③ 다양한 후원회 방문에 대한 후원회 방문으로  
후원회 방문을 위한 후원회 방문

KEUN YOUNG

Date

할수밖에 없는 실정도 이해해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고 환경운동이 건사되고 악습을 없애주시  
환경운동위원회의 자비나눔회는 취향이 맞아서 가능했다고 보이며  
자나나만 할때 진실성을 추구 한다.

✓ 우리 모두가 약속한바 인정하는 것은  
2013년 8월 2일 환경운동위원회를 인준  
공해추방운동회 출범하시, 국내에서의 환경운동을  
그리고 지구환경운동총회로 위촉하신

환경운동위원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환경을 지켜내고  
희망을 가지며  
맑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니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의 환경지킴이의  
일감이 될 수 있도록 등대지기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 이 중대한 소임을 환경운동연합이 맡아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따라주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시민사회의 공공활동에 무관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삶의 단약제로 비용이 줄어갈 때  
정부가 우리의 취미를 지원한다.

30% 이상의 경비를 회비로 충당하는 등공회를  
지주들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내려 10%는 기부금, 보구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다른 내주들은 재관공이 아니라  
외관공의 원할한 충당금을 지고하고 있다.

외관공 기부금 등공회 이주금으로 기부금 받고 있어서  
기부금 우리 내주에서 불거지고 있는  
현실과 달리 우리 내주에서 기부금 받고 있다.

✓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은 다름사람과 다름사람에게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 등공회 충당금 후회 인권, 여성, 환경에  
Date IN YOUNG  
인식

모든 이사회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  
선감사 감사드립니다.

✓ 세계의 선진사회에서는  
보다 견고한 사회기반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대등한 Partnership 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사회 service 를 중시 하고  
정부도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런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정부가 어떤 시민사회의 활동을 중시하는지의  
장래는 우리의 시민운동에 대한  
세계상의 우대관치에서 가늠할수 있게 한다.

✓ 미국의 경우는  
기부를 받으면 <sup>100%</sup> 세액 공제  
기부를 하면 <sup>30%</sup> Merit Tax 면제  
기부 유망책을 활용하여  
공익 활동을 위한 기부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기부금의 공제액이 환불되는 제도 <sup>100% 환불</sup>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후원금 <sup>100% 환불</sup> 환불제)  
이런 제도가 공익 활동을 위한 기부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세금의 용도 등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금의 일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반환금제에 대해 기부자는 제도를 우리에게 알릴 것

✓ 동양인들의 요구에서 사랑에 의도한 것 밖에 없는  
후원회 개회로 시작하리라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금에 학생회를 위한  
제제를 비롯한 민간단체 학생회로 확보등  
제로개척 운동도 민간단체들이 힘을 붙여  
해 낼수 있게 되리라.

학생들이 보내는  
시비선취 활동을 우리도 잊지 못해 배워서  
관심 우리 벗어날 수 있다.

✓ 외딴 환경운동의 힘이  
 여러의 상황에서도 힘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후진자들을 한데 모아 물이끼 하고  
 서로의 다짐을 해보 기하를 만들어 주기를  
 감사하고

이런 행동을 성취함에 치루어 비수 있는  
 환경운동의 힘이 여러의 차이를 만들어

외딴 후진자들의 진로를 기원하며  
 후진의 길을 가를 한다.